

□ 기획연재 □

컴퓨터 과학 산책(26)

교육개혁 우수대학 평가를 마치고

한국과학기술원 이광형*

필자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교육부의 “교육개혁 우수대학 평가위원회”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했다. 이 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학의 교육개혁의 성과를 평가하는 일을 위임받았다. 15명의 위원중에서 나 혼자만이 이공계 전공자였고 나머지 14명은 교육학 행정학 언론사 기업체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었다. 이 평가는 각 대학이 정부 시책인 교육개혁을 얼마나 능동적으로 추진하는가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살펴보며 그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심사에서 30여개 이상의 대학을 선정하여 3년간 약 10억원 씩을 지원하고 교육개혁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음을 공표한다.

따라서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인 120여개의 4년제 대학들이 보고서를 내어 명예를 걸고 경쟁을 했다. 심사 과정은 1차와 2차의 서류심사가 있고 최종단계에서는 현지실사가 있었다. 필자는 이번 기회에 여러 많은 대학의 실정을 깊이있게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특히 현장 실사에서는 우연하게도 각 대학에 있는 정보과학회 분야의 친구들을 만나 긴장과 강행군에 지친 평가 여정에서도 잠시 틈을 내어 오아시스와도 같은 한담을 나눌 수 있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심사과정에서 각 대학이 이 평가에 무척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고 특히 평가 과정과 평가 주안점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필자는 심사라는 공식적인 임무 때문에 사적인 담소를 자제해야 하는 점과 바쁜 일정 때문에 본의 아니게 상세

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일이 많아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이 글을 쓰는 세 가지 이유

내가 이 글을 쓰기로 결심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내가 평가 과정에서 배운 것을 많은 사람과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둘째는 평가 과정과 평가 주안점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분들께 내가 아는데까지 설명하여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아울러 내년 평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여기에는 심사중에 직접 문의해 왔을 때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한 사죄의 뜻도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 이유는 숙제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원고 청탁을 받는 순간 두 가지 감이 떠오른다. 하나는 주제를 들을 때 머리속에서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 경우다. 그때는 요청하는 내용으로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또 하나의 경우는 주제를 받았을 때 머리속에서 실마리가 전혀 떠오르지 않는 경우다. 이런때는 아무리 많은 시간 여유를 가져봤자 머리속에 떠오르는 것이 없어 글이 나가지 않는다.

그런데 컴퓨터 과학 산책이라는 주제로 97년 초에 글을 요청받았을 때는 불행하게도 두 번째 경우에 해당했다. 아이디어가 없어서 쓰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그랬더니 1년이라는 시간 여유를 줄테니 쓰라고 했다. 그후 편집위원을 만나면 원고 이야기하면 어찌나 마음 조리고, 학회에서 전화가 오면 원고 독촉이 아닌가 가슴조리기를 10개월 하다가 오늘에야 그 숙제

*중신회원

를 마치니 이 해방감 이루 말할 수 없다.

평가 과정

그러면 작성하고 평가 과정과 주안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한다. 1차 서류 심사에서는 120여개의 대학이 그동안의 교육개혁의 성과와 추진계획을 30페이지 짜리 예비 보고서에 담아서 제출했다. 1차와 2차의 서류 심사를 위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9개 평가항목에 따라서 작성되었다.

1. 교육개혁 추진체제 구축, 2. 대학의 특성화, 3. 열린교육의 재도적 기반구축, 4.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학생선발, 5. 교육의 수월성 제고, 6. 연구의 수월성 제고, 7. 대학의 세계화, 8. 대학의 정보화, 9. 행정 재정의 합리성

이 보고서를 받은 평가위원회에서는 3개 조로 나누어 각 조별로 항목을 분담하여 평가했다. 각 위원들은 6월말 한 주일을 꼬박 이 평가에 매달려야 했다. 이와 같이 평가를 마친후 70개 정도를 2차 심사대상 학교로 선정했다. 여기에는 국립 사립 개방대 교육대 등의 구분을 두어 선정했는데, 각 구분별로 비슷한 경쟁률을 보이도록 안배하였다. 모든 대학을 동일한 선에서 비교하면 구분별로 점수 차이가 많아서 불합리했기 때문이다.

1m 50cm

그후에 8월 초에 심사위원에게는 2차 심사용 보고서가 도착했다. 2차 보고서의 두께는 150페이지로 제한했지만, 부록을 제한없이 붙일 수 있게 하여 두꺼워졌다. 교육부에서 택배를 통해서 보내온 박스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짐을 풀어 보고서를 차곡차곡 쌓아놓으니 1m 50cm나 되었기 때문이다. 이럴줄 알았으면 위원회 참여를 처음에 좀 더 완강하게 거절하는건데 하는 후회가 절로 나왔다.

2차 심사도 위원회가 3개조로 나뉘어 맡은 부분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이런 평가 방법을 여기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평가위원의 입장에서 열흘동안에 1m 50cm나 되는 모든 보고서를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이다. 그래서 각 위원은 자기가 맡은 부분만 읽는다. 따라서 여

러 평가항목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 어느 항목에만 삽입하면 위험하다. 위원이 연결된 항목으로 찾아가서 읽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때는 중복이 되더라도 다시 설명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많은 부록을 붙여 두껍게 만드는 것도 삼가야할 것 같다.

이 평가를 마치고 현지 실사 대상학교로 뽑힌 대학이 50개 정도였다. 여기에서도 국립 사립 개방대 등으로 구분을 두어 선정했다.

위원회에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많은 대학을 돌아다니며 현장실사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다. 길고 긴 토론 끝에 위원들을 4개 팀으로 나누어 각 팀당 12~13개 대학을 방문하기로 했다. 3명의 위원은 현장 실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어서 3명이 한팀을 이룬 것이다.

화장실의 불량학생들

현지 평가는 8월말과 9월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각 팀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루에 두 개의 대학을 방문하는 일정이었다.

현지실사는 몇가지 관점에서 평가하도록 주문을 받았다. 첫째는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간혹 착오에 의해서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 기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계획으로 되어있는 사업이 실현성이 있다고 보이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어떤 경우에는 실현성이 적어 보이는 것을 계획으로 내세우는 일이 있다고 하여 생긴 임무였다. 셋째는 교육개혁에 관한 의지를 확인하는 일이었다. 총장을 비롯하여 교수 직원 모두가 변화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현지 실사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성심으로 준비하였다. 보직교수와 관련직원들이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가 평가위원들의 질문에 성심으로 답변해주고 서류를 보여주었다. 특히 대학정보화 수준을 알아보아야 하는 내가 교위 행정직원의 컴퓨터 사용실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었다. 이것이 마치 시험을 보는 느낌이었는데도 협조해준 분들이 무척 고마웠다.

약 열흘간 지속된 이 현지방문은 위원들에게는 지극히 고된 작업이었다. 연속되는 출장에서 오는 피로뿐 아니라 평가라는 중압감이 무거웠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에서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한시도 휴식할 여유를 주지 않고 학교자랑을 계속했다.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정해진 시간내에 평가위원의 머릿속에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지만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고분과 같은 일이었다. 하루 종일 이런류의 세뇌를 받고나면 오후가 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을 전지기 어려웠다.

그러자 평가위원들도 피가 생겼다. 피곤할때는 10분만 쉬었다 이야기 하자고 하고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것이다. 3명의 위원이 화장실에 모여서 담배를 피우면서 “화장실에 숨어서 담배 피우는 것을 보니 우리가 불량학생들이 된 기분이다”고 하여 웃기도 했다.

어떤 경우는 오전에 방문한 학교에서 오후에 약속된 학교로 가는 가운데 시간이 남는 경우도 생겼다. 교통체증을 우려해 이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가 차가 막히지 않아 일찍 도착하게 된 것이다. 미리 도착하면 준비하는 측에 실례가 되기도 했지만 도착하면 곧바로 학교자랑을 들어야 하는 일이 두려웠다. 운전기사에게 해당학교에 알리지 않고 휴게실이나 벤치에 내려 달라고 하여 휴식을 취했다. 그러다가 어떤 곳에서는 우리가 미리 도착했다는 사실이 학교측에 알려져 학교직원들이 캠퍼스를 온통 뒤지며 우리를 찾아나서는 통에 오붓한 여유도 깨지는 불행을 당하기도 했다.

제삿날과 아내의 생일

위원들이 터득한 또하나의 피는 저녁식사 자리를 피해 나오는 방법이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심사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면 식사를 제공해주었다. 현지 평가를 시작할때는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대상기관에 폐를 끼치지 않고 공정한 심사를 할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이때 나온 아이디어로서 식사대접과 선물을 받지 말것 등의 주의 사항이 전달되기도 했다. 그리고 출장의 경우 호텔비를 대상기관에서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사를 마치면 우선적으로 그 도시를 떠나서 호텔을

정하라는 권고도 있었다.

우리 일행도 처음에는 위원들끼리 따로 식사를 하려고 했지만 손님으로 오셨는데 그냥 가실 수가 있느냐는 총장님들의 말씀을 기억할 수가 없었다. 점심은 그래도 괜찮았다. 오후에 방문할 학교가 있기 때문에 식사시간이 길어야 한시간이었다. 그런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저녁시간이 문제였다.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열흘을 계속한다면 고역이라 할만했다. 그래서 고안해 낸 것이 “제삿날”과 “아내의 생일”이었다. 어느 위원은 집안에 제사가 있어서 집에 일찍 들어가 봐야 한다고 하고 다른 위원은 아내의 생일이라 일찍 들어가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비교적 이런 핑계가 잘 통했는데 특히 “제삿날”이란 핑계가 잘 통했던 점은 우리 의 식속에 아직도 유교사상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한편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이런 핑계를 대고 식사대접을 받지 않고 나왔던 대학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욕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점이다. 부디 피로에 지쳐 짜낸 궁여지책이었다는 점을 아량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랄뿐이다. 그런데 식사에 관해서 가장 고마운 대접은 교내식당에서의 식사였다. 점을 강조하고 싶다.

나를 감동시킨 일들

이번 평가를 통하여 다른대학에서 배울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A대학은 교수 학생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제2 창학”을 목표로 뛰고 있었다. 특히 이 학교는 모든 구성원이 발전기금을 내고 동참들은 “등록금 한 번 더 내기 운동”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B대학은 발전기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동문주소록과 기증 가능 학부모 명단을 작성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4개월간 1억3천만원에 용역을 주었다고 한다.

많은 대학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음을 보았다. 지역주민, 구청과 시청직원을 위하여 컴퓨터 교육과 교양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C대학에서는 총장의 직인을 여러개 만들어서 이용한다. 증명서 발급과 공문서 발송에 이런 특수 목적으로 만든 도장을 사용한다. 물론 이 도

장을 찍으면 그 목적용이라는 글씨가 찍혀서 도장의 남용을 예방한다.

D대학은 일반 직원을 뽑으면 무조건 1년간은 전산실에서 근무를 한다. 그곳에서 정보화 교육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일선 행정부서로 배치된다. E대학과 F대학은 도서관과 전자계산소를 통합했거나 전산소장이 도서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는 정보화 사회에는 도서관의 기능이 단순히 책을 관리하는 역할에서 정

보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역할로 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교육개혁 우수대학 평가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기뻐다. 그러나 혹시라도 평가하는 가운데 실례를 범하는 일이 있거나 않았는지 두려움도 함께 따른다. 특히 현지 실사에서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제한 때문에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던 점을 준비했던 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 '97 추계 전산교육 학술논문발표회 ●

- 일 자 : 1997년 11월 28일(금)
- 장 소 : 한국방송대학교 세미나실
- 주 최 : 전산교육연구회
- 논문마감일 : 1997년 11월 15일(토)
- 논문접수처 : 한국방송대학교 전자계산학과
- 문 의 처 : 한국방송대학교 전자계산학과 김강현 교수
Tel. 02-7404-655